

공동주택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Dreaming of a Housing Renaissance

뉴욕 하우징의 역사를 기술한 컬럼비아 대학의 리처드 프렌즈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의 아파트 계획 초기에 상당수의 건축가들은 당시 소위 보자르 유형의 건축들이 주도하면서 소위 작품건축에 매진하였고, 일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우징 분야에 진력하였는데, 하우징에 관심을 돌린 건축가들은 대부분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얻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생만 잔뜩 하고 명예는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프렌즈 교수는 고생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명성은 얻지 못한 대표적인 건축가로서 포터(Edward T. Potter)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미학적 측면이 중심을 이루던 당시 건축의 주된 흐름에서 비껴 나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일반 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한 기능적 관심에 매진하였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의 개선에서 건축이 할 일을 찾아보았던 이러한 사람들은 프렌즈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가들이었던 것이다. 1905년 포터가 죽었을 때 브루어(Alfred J. Bloor)라는 사람은 그를 다음과 같이 추도했다.

순수건축의 창조에 대한 능력과 재능을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고, 권위를 누리고 다루기 쉬우며 보수가 좋은 화려한 일들에 매진할 수도 있었으나 비용, 법규, 부지조건, 환경 등 피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 하에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그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관계없이 채광, 양호한 배수로, 통풍 등의 제공을 위해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관심을 기울였고, 우리 사회 다수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일생의 대부분을 바친 건축가.

이와 상반되게 1900년대 초반 도시미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중요 인물 중의 한 사람인 로빈슨(Charles Mulford Robinson)은 주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가 우선 깨달아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영역이 사회학이 아니라 대중예술이라는 점이다. 대중예술은 그 자체가 주택의 외관에

대한 관심만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빛이 들지 않는 침실, 컴컴한 홀과 계단, 불결한 지하방, 위험한 설치물, 욕실이 없는 집 등과 같은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사회학적으로 압박 받는 일들이고, 솔직히 가슴 아픈 일이지는 하지만 대중 예술은 책임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굳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만일 건축사가 지닐 수 있는 꿈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매일 매일의 생활공간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들어간다면 그래서 누구나 매일 거주하는 주거건축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축사는 포터와 같이 고생만 하고 명예는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사로서 일생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양적으로 보면 가히 공동주택의 르네상스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설계가 발주되고 있다. 주택공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일대의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일시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공사는 작년엔 6만 호를 공급하였던데 비해 올해 공급목표가 10만 호에 달한다. 따라서 올해는 많은 공동주택 현상이 계획되고 있어서 주변에서는 공동주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설계 사무소에서 올해 한두 개 이상의 현상에 당선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공동주택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의 르네상스보다는 질의 르네상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많은 건물 유형 중에서 공동주택만큼이나 많은 욕을 먹은 건물 유형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공동주택이 욕을 먹을 정도의 수준에서 지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계획의 질을 높이는 일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좋은 건축사가 많아야 하고, 일반 대중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나 관심의 정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질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발주자가 지나치게 가혹한 밀도 조건을 내거는 것도 물론 좋은 클라이언트라 할 수는 없다. 명예를 중시하는 건축사는, 또는 로빈슨처럼 나는 사회학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건축사는 가혹한 밀도 조건을 내미는 클라이언트와 상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건축사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질의 르네상스를 이루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적 의미의 관심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약간의 변화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의 설계에 손을 담그고 싶어하지 않거나 가혹한 설계조건을 심하게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어놓은 수많은 공동주택을 어느 정도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국내의 공동주택들을 얼마나 다녀 보았는지, 도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분석해 보았는지, 괜찮다 싶은 사례들은 얼마나 소개를 하고 자료화하였으며,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주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 여겨진다.

건축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평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배우고,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면에서 국내 공동주택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요소의 발전적 평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주된 공부감으로 삼고 이런 저런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흔히들 비판하듯이 우리의 선배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그려댄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누가 무어라 해도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 고민하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접하게 된다. 가혹한 설계조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해보려 고민한 흔적들도 보게 된다. 이름 없는 건축사가 되더라도, 고생만 하고 명예는 얻지 못한 채 일생을 보낸 한국의 포터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된다.

한국의 공동주택은 계획조건이나 여건이 척박하고 계획의 질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건축사 각자가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동주택이 질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려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의 선배가 했던 일들을 되새김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고, 답사해 보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일이다.

미래는 항상 과거의 일에 대한 반성과 계승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